

日韓の校則

校則という言葉から「制服」を思い浮かべる人は多いでしょう。高校によって違いはありますが、日本も韓国も多くの高校では制服が定められており、身だしなみについては厳しい規則が設けられているケースが多いです。しかし、その中でも日本の生徒は制服をファッションの一部と捉え、スカートの丈を調整したり、大き目のカーディガンを身につけたり、かばんに小物を付けたったりして独自の個性を發揮しようとする傾向があるように見られます。中にはパーマをかけ、お化粧をする生徒も。韓国の女子高生も制服の丈をタイトにして体のラインを見せるなどの特徴が見られますが、校則が厳しい学校が多いのでしょうか、日本ほど自由なファッションを楽しんでいるようには見えません。

교칙이라는 말을 듣고 ‘교복’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이 있으며, 옷차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일본 고교생들은 교복을 패션의 일부로 생각하고 치마 길이를 조절하거나 큰 옷을 입거나, 가방에 소품을 달거나 해서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는 파마나 화장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국 여고생도 교복을 몸에 딱 맞게 입고 몸의 라인을 강조하는 등의 특징이 있지만 일본만큼 자유로운 패션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칙이 엄한 학교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